



소리주보



주보 표지 공모전(사진 부문) 수상작 : 최점식 유스티노(남밀양성당)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2024년 4월 21일

입 당 송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 1 독 서 사도행전 4,8-12

화 답 송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후렴)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1.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2.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3.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여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 2 독 서 요한 1서 3,1-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요한 10,11-18

영성체 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달맞이성당 봉헌식

4월 28일(일) 11: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 나길 88

착한 목자의 삶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노력하는 모든 성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소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와 삿꾼의 차이, 울타리 밖의 양들과 목자의 직무, 착한 목자이신 당신의 권한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착한 목자로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착한 목자의 삶’은 목자로서의 직무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로서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

우리는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바라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결국,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상하면서 ‘과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제2독

서에서 요한 사도는 넘치는 하느님의 은총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1요한 3,1)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목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1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받게 된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2)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요한 10,16)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와 그 간절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들인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르면서, 세상에 구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참된 제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소 주일을 맞아 각자의 삶에서 성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양들을 버려두지 않는 분이시며, 목숨을 던져서라도 양들을 살리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착한 목자의 삶을 목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분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설명



제대 위의 촛불을 밝히며 두손 모아 정성스럽게 미사성제에 봉사하는 복사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귀기울이고 응답하도록 합시다. 또한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청하나다.

주보 표지 공모전(사진 부문) 수상작 : 최점식 유스티노(남밀양성당)

박상운 바오로 신부
만덕성당 주임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61차 성소 주일 담화 요약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평화를 건설하라는 부르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해마다 성소 주일은 소중한 선물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순례하는 백성의 일원인 우리가 당신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여 우리의 다양한 생활 신분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정 중에 있는 백성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둔 외딴섬들이 아니라 더 큰 전체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소 주일은 시노달리타스의 특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인지 식별하고자 서로 경청하고 함께 걸어가라고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다양한 선물 가운데에서 자신의 성소와 그 자리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꿈을 알리는 전령이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소 주일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아버지께 거룩한 성소의 선물을 청하는 기도에 특별히 봉헌된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희망의 순례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더없는 축복임을 재발견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희망이 자라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기도가 희망으로 가는 문을 열어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편에 희망이 존재하지만, 그 희망에 이르는 문은 나의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20.5.20.)



담화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 평화의 건설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평화와 정의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걸음을 내딛으려고 노력합니다.

희망의 순례자이며 평화의 건설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였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반석 위에 기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유한 생활 신분에서 나름대로 작은 방식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희망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투신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저마다 교회와 세상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성소를 찾고 희망의 순례자이며 평화의 건설자가 될 수 있도록, 무관심을 뒤로하고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곤 하는 감옥의 문을 열어젖히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투신합시다.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쁨의 전령이자 새 생명의 원천, 형제애와 평화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일어나 희망의 순례자로서 길을 나섭시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우리의 이름이 시작된 곳

“요한아~!” “영아~!” “신부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 자주 듣게 되는 말들입니다. 제가 가진 이름들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이 이름들은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희망,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희망, 사랑하고 봉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겠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분명 내 것이기는 한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본질적으로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는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나를 부르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나에게 가진 희망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불리는 그 이름들은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는 단순한 소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삶과 희망과 축복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자신만의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희망과 사랑을 담아 내 이름을 불려주는 이가 있을 때 빛이 나는 나의 이름은 결국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심 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리들이 진정한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향한 소리인지, 나를 위한 소리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소(聖召, Vocatio)는 하느님께서 나의 이름을 당신 이름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 안에 새겨진 희망이 나 혼자만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과 희생과 나눔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3장에는 하느님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답을 하게 되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무엘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 기울이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성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 하느님의 목소리를 향해 돌아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시작된 곳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움직여 하느님께서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소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용기 있게 대답하기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나요? 뭐라고 대답하고 계신가요?



남영 세례자요한 신부
성소국장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101.1MHz 울산 FM93.7MHz 녹산(서부산) FM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재) 16:50 4.22(월)~4.27(토) 박상운 신부(만덕성당 주임)	
다정 다감 다섯시 4.22(월)~26(금) 17:00~18:00 진행: 이한나 아나운서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4.26(금) 14:00~16:00 진행: 김진호 신부(당광 보좌) 박소정 찬양사도(남천)	
 <p><지구의 날 이벤트> 지켜주고 싶은 지구의 모습과 실천 내용을 남겨주세요! 참여방법: 유튜브 댓글, 유료문자#2340, cpbc뽕</p>		 <p><찬양콘서트> 출연: 이태영 마누엘(부산가톨릭합창단 부지휘자) 가브리엘라네스(김시연 아네스, 오영주 가브리엘라)</p>	

메리놀병원, 개원 74주년 기념미사



난 4월 15일(월) 마리아 홀에서 기념미사와 기념식을 진행했다. 미사는 총대리 신호철 주교 주례로 봉헌했으며, 병원장 인사,

메리놀병원(병원장 : 김태익 그레 개원 74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장고리오)은 개원 74주년을 맞아, 지 기근속상 시상 등이 있었다.



4월 6일(토) 농소종합운동장
주임: 문성호 신부, 회장: 박홍배 프란치스코

오른대순교자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4월 7일~4월 13일] 합계: 9,574,000 원, 누계: 2,069,043,000 원

서동성소후원회 1,000,000 사도회울뜨레아 224,000 양산남부1구역3반 100,000 남천사도들의어머니 120,000 대전평화의모후 200,000
반여죄인의의탁 100,000 사직평화의모후 200,000 서면자비의모후 200,000 성안평화의모후 100,000 신자들의도움 100,000 쌍투스 300,000
동서약품조신현 1,000,000 박태웅 1,000,000 표정민 100,000 표가령 100,000 표서운 100,000 안상선백승흔 40,000 주영철 30,000
김한규 100,000 강경순 100,000 장석훈 100,000 엄영희 100,000 김춘옥 100,000 최재조 100,000 김장성 50,000 이영명 50,000
김문점 100,000 김정인 100,000 김남희 100,000 강계남 100,000 신봉철 100,000 김재철 200,000 김영희 30,000 한경희 30,000
박현우 100,000 신영일 100,000 고순덕 200,000 황승희 100,000 박경임 100,000 최순자 100,000 김경복 50,000 장미령 20,000
권현주 100,000 염승현 100,000 한상민 100,000 송연경 100,000 서애란 100,000 박쌍수 100,000 정경애 50,000 강숙자 10,000
김문주 100,000 박순남 100,000 정기호 300,000 정향자 100,000 신세경 100,000 송수영 100,000 유운재 20,000 김명숙 50,000
강순자 100,000 하문숙 100,000 차미향 200,000 홍종숙 100,000 장미옥 100,000 김은정 100,000 안창열 50,000 천옥복 50,000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협 301-0629-8734-11, 부산 113-2014-1175-03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손으로 하는 영성체’의 근거와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영성체의 본디 방법은 입으로 영하는 것입니다. 1969년 5월 29일자 경신성 훈령(Memoriale Domini)은 손영성체를 허용하면서, 각국 주교회의가 이 허용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해 교황청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1974년 4월 18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손영성체 허용 여부를 각 교구장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이후 1985년 4월 3일자 경신성 지침(De Comunione eucharistica)은 손영성체에 관해 몇 가지를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땅한 존경을 표하며 양손으로 성체를 받는다; 2.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고백한다; 3. 손에 성체를 받은 후 옆으로 비켜서되 제단을 향해 서서 즉시 성체를 영한다; 4. 반드시 성체 분배자로부터 성체를 받아야 한다; 5.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6. 성체 가루라도 떨어

어져서는 안 된다; 7. 신자들에게 손영성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1995년 4월 16일에 공표된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8조는 “영성체는 혀로나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1항의 양손으로 성체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1985년 7월 1일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31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쳐, 축성된 제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입에 옮겨 모셔야 한다.” 3항은, 뒷사람을 배려하여 비켜서서 영하며, 성체를 가진 채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항은, 성체가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므로 성합이나 성반에 놓인 성체를 교우가 스스로 집어서 영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7항은, 본디 방식대로 입으로 영하고자 하는 교우를 성체 분배자가 거절해서는 안됨을 알려줍니다.

■ 전례위원회

교 구

청소년사목국 편집디자이너 구함

업무 : 교재 및 행사 관련 편집디자인
 서류 : 이력서, 교적, 자기소개서, 본당신부추천서, 등본, 자격증 사본 / 접수 : 4.30(화)까지
 문의 : 629-8741(청소년사목국)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직(24.6.1~26.1.31)
 ※ 면접일자 :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 당

동래성당 사무직원 구함

자격 : 회계, PC(한글, 엑셀) 숙련자
 서류 : 이력서, 교적, 자기소개서, 본당신부추천서
 서류마감 : 4.23(화) 18:00 / 문의 : 555-2295

기관·제 단체·위원회

시각장애인선교회(큰빛) 후원회 미사

·4.22(월) 11:00 ·선교회
 문의 : 464-3909(시각선교회)

해양사목 해양선교 및 치유 미사(안수)

·4.23(화) 14:00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주례 : 맹진학 신부 / 문의 : 464-2707

교구평형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4.27(토) 출발 : 수영장대순교성지(13:00),
 온천천입구(14:00), 도착 : 오륜대순교자성지
 경유 : 동래역(15:00)-장전역(16:00)-
 오륜대성지(16:40)-파견미사(17:00)
 문의 : 629-8713(교구평형 사무국, 사목기획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4.26(금) 10:30 / 세계오지선교회 차량지원
 ·남천성당 / 문의 : 623-4528(사무실)

부산교구 순교자현양미사

·4.27(토) 11:00 ·오륜대순교자성지 임시성전
 문의 : 010-2193-0471(부산교회사연구소)

꾸르실로 참가신청

447차 자매 : 4.25(목)~28(일)
 448차 은총 : 5.9(목)~12(일)
 ※ 신청서 상시 접수(각 차수 50명 선착순 마감)
 문의 : (055)388-5734 또는 본당 간사

여성연합회 여성 전신자 교육

·4.30(화) 13:30~17:00 ·남천성당
 부산교구 여성 전신자(남성 신자 참석 가능)
 13:30 목주기도 14:00 특강(김창석 신부)
 15:00 찬양(떨기나무) 16:00 파견미사(총대리 주교)
 참가비 : 없음 / 문의 : 010-3562-3308

아르카 74차 창세기 연수

신청대상 : 창세기 그룹공부를 마친 청년
 ·5.3(금) 19:00~6(월) 16:00 (3박4일)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 문의 : 519-0483
 인스타그램 : 2002arca_bible
 다음카페 : 부산교구 ARCA청년성서모임

부산선택주말 제97차

·5.24(금)~26(일) ·푸른나무교육관
 대상 : 40세 이하 청년, 비신자 환영
 참가비 : 12만원/문의:010-3525-6252(여정모)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성인 예비신자
 문의 : 519-0490(화~금 13:30~16:30)

성령새신 봉사회(영성의집)

- 수요일 치유미사 : 4.24(수) 13:00~15:30
 - 가야성당 금요일 밤미사(매월 넷째주 금요일)
 ·4.26(금) : 치유 대피정 관계로 휴회
 - 월요일양미사·기도회(안수)
 ·4.29(월), 5.13(월) 19:30 전포성당
 - 제22차 치유 대피정 : 4.27(토) 10:00~17:00
 강사 : 김현우 신부(인천교구)
 미사 : 전담, 지도사제단 / 미사도구, 묵주,
 돗자리, 도시락, 컵 등은 개인별 자참요
 문의 : (055)382-9465

성령새신 봉사회(울산 영성의집)

목요일미사 4.25(목) 20:00~23:00
 문의 : (052)244-7014

블레나양상블 연주회

라인베르거 미사곡(거룩한 목주기도의 여왕께)
 우정출연 : 미리내 오카리나 앙상블
 ·4.24(수) 19:30 ·이기대성당
 문의 : 010-9620-5075

울산가톨릭합창단 단원모집

·매주 월요일 19:40 ·야음성당
 문의 : 010-5586-0370

부산가톨릭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5.20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선박) 80만원
 ·6.3 동유럽 순례 11일(KE) 500만원
 ·6.17 다낭 순례 5일(LJ) 135만원
 ·10.7 발칸, 메주고리에 12일(KE) 550만원
 ·10.15 스페인, 포르투갈 12일(KE) 570만원
 문의 : 010-3837-6434

혼인미사(결혼식) 2종

① 혼인미사 풀 패키지 : 혼인미사+피로연
 (토.일.공휴일 11, 13, 15, 17시)
 ② 혼인미사 패키지 : only 혼인미사
 (토.일.공휴일 15, 17시; 리마인드 웨딩 가능)
 문의 : 441-3500(부산가정성당)
 catholicwedding.kr

부산가톨릭 음악세상 ⑫ 천상의 음악 그레고리오성가

문의 : 010-7767-4390 (무료 초대)

출연 :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안젤리카그레고리오합창단

■ 일시 : 4월 29일(월) 19:00 라틴어 노래미사 19:50 음악회

■ 장소 : 신학교정 대성당 ■ 미사주례 : 임석수 신부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10. 4. 25.
 장병룡(사도요한) 신부님



(주)씨 피 여행사

5/20 나가사키순례 4일 선박
 6/3 동유럽순례 11일 KE
 6/17 다낭성모성지 5일 LJ
 247-5858, 010-3837-6434

바름내 과 의원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소화기질환
 고혈압, 당뇨,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문재현, 이재형, 박기태(베드로)
 온천정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

태성 Solution

R&D, 실험실, 품질관리 분석장비·소모품
 TOC, UV, ICP, UTM, GCMS, XRF
 Balance, 시약장, 실험Table, 공조시설 등
 대표 손태일 바오로 010-3847-0893

스마일정경우비뇨의학과

전.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744-8181, 010-5616-8600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주전자사회는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

범무법인 대한중앙

민형사, 행정, 가사 등 제반분야
 법률상담 / 대표변호사. 정민(가브리엘)
 714-3681, 010-9594-2360
 부산법원 정문 맞은편 골목 와우빌딩 2층

고운말고운몸짓발달센터

아동언어·감각통합·심리·RT·그룹치료
 150평 대형센터(ADHD, 무발화, 난독증,
 발달지연, 섹슬러) - 해운대 장산역 13번
 김민지 마르첼리나 731-2588

이상열마취통증의학과의원

허리·목·어깨·무릎·팔꿈치 통증
 지하철 1호선 구서역 1번출구 앞
 원장/전문의 이상열(베드로)
 516-0888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성소모임

·4.28(일) 13:30 본원
문의: 010-2641-4819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대상: 협력자 회원 & 개인 누구나 참여가능
·매월 넷째주 월요일 11:00
·오른동 성바오로서원 / 문의: 521-8898

자살유가족 마음돌봄 피정

·4.28(일) 13:00~17:00 ·성심영성센터
대상: 소중한 이들을 자살로 잃은 이들
문의: 010-8811-6187

맥으로 읽는 성경

·4.26~7.12 매주 금 14:00~16:00(12주)
- 성경 전체의 맥을 따라 쉽고 친숙하게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 말씀을 통해 신앙의 유산과 가치 재발견하기
문의: 010-5354-5796(살레시오영성의집)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형제회 재속회

(가경자 소알로이시오 신부님 추모재속회)
·매월 4째주 일요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 65세 이하의 성인
*회원 모집 / 문의: 010-3570-3020

성모성월 피정(내 안의 정원에서)

·5.2(목) 10:00~16:00
문의: 010-2466-2989(전교가르멜수녀회)

마리아수녀회 알로이시오힐링센터 무료상담 및 교육생 모집

·부산시 서구 감천로 229 / 내용: 심리치료, 학부교육, 부부워크샵, 전문가 양성교육
대상: 아동청소년, 성인(부부)
문의: 250-5215, 010-4561-0929

온라인(Zoom) 33일 묵상회

·4.29(월) 20:00~5.31(금) 봉헌
회비: 3만원(교재 포함)
접수: 010-2724-4819(서울마리아학교)

5월 8일 어버이날孝나눔 <5,800원 모금>

5,800원 모금으로 지역 어르신께 건강 식사 꾸러미와 카네이션을 선물해주세요(부산은행 041-01-027699-5 서구종합사회복지관)
·4.1(월)~5.5(일) / 문의: 253-1922

교리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학교

·5월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 20:00 / 문의: 010-3405-7665(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수경요법 세미나(4회 완성)

·5.7, 14, 21, 28(화) 13:00~18:00
·사직성당 / 회비: 35만원(교재, 교구 포함)
신청과 문의: 010-5486-1108

2024년 성령쇄신 전국대피정

·4.27(토) 09:00~17:40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오웅진 신부, 한연흥 신부, 양창우 신부
미사: 구오비 주교, 전국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주관: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대상: 모든 교우 / 문의: (02)777-3211

젊은이 봄 피정

·5.4(토)~6(월) ·평창 라베르나의 집
문의: 010-5715-170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성모술솜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윈 없이 기도하자
·5.10~12, 6.7~9, 7.12~14(매월 둘째주 금~일)
문의: 010-3209-3955(문자접수)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성지·역사·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5.14~16, 5.27~29, 6.22~24
우도포함: 7.25~28, 8.2~5, 8.8~10
성지순례: 4.25~28, 5.2~5, 5.8~11
5.19~22, 6.3~6, 6.15~18, 9.7~10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들 목장으로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자연순례: 5.6~8, 5.17~19, 5.22~24, 6.21~23
7.12~14, 7.20~22(우도포함), 7.25~28, 8.1~4
추자도포함: 5.26~29, 6.16~18, 7.1~3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064)796-4182,(02)773-1455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바람,나(힐링피정): 5.10(금)~12(일)
성경완독: 5.17(금)~25(토), 6.21(금)~29(토)
효소단식: 5.30(목)~6.2(일)
문의: 010-3340-0201(황성도미니코피정의집)

예수마음기도 하루 무료 피정

·5.11(토), 6.8(토) 10:00~15:00(14:00 미사)
매월 둘째주 (토) 무료피정 예정
·부산 가톨릭센터(462-1870)
강사: 권민자 수녀 / 신청: 010-4837-7509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6.3(월) 14:00
원서접수: 5.7(화)~20(월) 17:00
문의: (02)3147-8156(대학원교학팀), (02)3147-8664(조교)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자율전공학부(신설)**

- ▶ 입학 후 진로 선택
- ▶ 100% 전공배정(전과) 가능
→ 전공배정(전과) 소속 학과 졸업 및 관련 학위 취득
- ▶ 자율전공학부 융합(공유)전공 학위 취득

문의: 051-510-0557 www.cup.ac.kr scc.cup.ac.kr

‘육에 티’를 찾습니다! 후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협성주단·한복</p> <p>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여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271호 646-1123, 010-3594-2137</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우 일 촌</p> <p>짜장면, 칼국수 출장 주문 교중미사 후·주일학교·노인대학 40명~500명 한협(그레고리오) 010-9576-1476</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동의의료원 무릎관절센터</p> <p>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관절, 송무호(토마스) 박사, 부산의대 졸업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진료예약 850-8747</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주)가나안보청기</p> <p>남포점/서면점/해운대점/동래점 원산지: 독일 청각학 박사 맞춤상담 가능 010-7674-2828 (김도헌 모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라이프치과</p> <p>임플란트·보철·보철틀니·평생치아관리 해운대역 세이브존후문 리인뷰2차앞 박찬야 요한 크리스토토모, 최재훈 바오로 743-3334</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리즈 김상식안과</p> <p>안검하수 / 눈썹찌름 / 안성형 성형안과 전문의 원장. 김상식 디모테오 335-1004, 010-5872-0532 지하철 덕천역 9번 출구</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도로연수</p> <p>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 전문강사: 김 정 근 (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독일보청기</p> <p>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 일반90%) 세계6대브랜드 보청기 모두 취급 판매 김무나(글라라) 교우특별법인 803-5588, 1871(빨간색간판)</p>